

寒岡의 政治思想에 관한 研究

琴 鍾 友

目 次	
I. 序 言	3. 著 述
II. 寒岡의 修學과 學問精神	IV. 「心經發揮」
1. 修學	1. 「心經」과 「心經附註」
2. 學問精神	2. 退溪의 “心經後論”
III. 民本主義 政治思想	3. 「心經發揮」
1. 民本主義	V. 結 言
2. 君道와 爲民政治	

I. 序 言

理學, 性理學, 道學, 聖學, 儒教 또는 儒學 등으로 불리는 斯學의 政治思想을 研究함에 있어서 이 學問 思想이 原理가 되었던 그 時代의 政治實態와의 關係를 어떻게 規定할 것인가는 명확히 해결 된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이를테면 朝鮮王朝의 斯學과 政治를 어떻게 關聯지을 것인가의 問題는 朝鮮王鮮의 政治가 斯學의 理念을 充分히 實踐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提起되는 것이다.

朝鮮時代의 政治가 從屬性으로 그 性格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斯學의 理念이나 思想과 直接的인 關聯은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떠한 理念이나 政治思想도 治亂의 狀況에 따라서 理念과 思想의 具現되는 樣相이 달라지는 것이다.

治亂은 窮極의 으로 理念 思想에 根據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朝鮮時代의 政治의 잘 잘못은 窮極의 으로 그 自體에 根據하는 것이지 斯學의 中樞의 이며 本質의 인 思想과 理念에 있는 것이 아니다.

斯學의 思想과 理念은 그 實現에 있어서는 盛衰의 때가 있었을지 언정 斷絶된 일은 없었으며 萬世에 流行할 것이다.

要約컨대 斯學의 思想과 理念은 民主主義發展에 기여할 不可缺의 高次元의 理念이라고 규정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¹⁾

이 論文은 위와 같은 視角에서 寒岡先生의 政治思想을 研究하고자 한다.

1) 琴鍾友, “韓國의 傳統的 民主政治思想에 관한 研究” 韓國政治學會 · 在北美韓國人政治學會「第五回合同學術大會論文集」, pp. 8~22, 韓國政治學會, 1983.

Ⅱ. 寒岡의 修學과 學問精神

1. 修 學

寒岡 鄭述(1543~1620) 先生의 字는 道可이며 本貫은 淸州이다. 先生의 先祖는 서울에 世居하였으나 그 父親이 寒暄堂 金宏綱의 外孫으로 玄風外家에 와있으면서 星州고을의 星州 李氏와 結婚하여 星州땅에 定居하였다.²⁾

寒岡은 五歲에 神童으로 불리었고 豪邁한 天資에 遠大한 志氣를 지니었다.³⁾

十歲에 發憤讀書하였던 바 大學과 論語를 읽고 그 뜻을 通하였으며 十二歲에는 先聖 畫像을 손수 본떠서 벽에 걸어두고 瞻拜하였다⁴⁾고 한다.

十三歲에 州學의 教授 德溪吳健先生에 就學하여 易傳을 배웠는데 乾坤二卦를 읽고 나머지 모두를 類推하였다⁵⁾고 한다.

二十一歲에 退溪先生을 뵈었는데 退溪先生은 그 英敏하고 志學好善之士임을 일켰다. 그 해 가을에 鄉解進士試에 合格, 다음해 봄에 會試보러 갔으나 禮闈에 들지 않고 돌아왔다. 그 길로 科擧를 포기하였다. 다음해 봄에 退溪先生에게 「心經」을 質義하였다. 이로부터 몸소 왕래하였을 뿐 아니라 書牘으로 계속 質義하였다.⁶⁾

二十四歲때에 南冥 曹植先生을 뵈었다. 어느날 南冥은 「士君子大節惟在出處汝於出處粗有見得吾心許之也」⁷⁾라 하였다.

寒岡은 宣祖의 물음에 退溪·南冥 두 스승에게 執經受業하지는 않았으나 門牆에 出入하면서 請問質疑하였다⁸⁾고 하였다.

宣祖가 이어 두 선생의 氣象과 學問이 어떠냐고 물었을때 退溪는 德器가 渾厚하고 踐履가 篤實하며 工夫純熟하고 階序分明하여 學者가 易以尋入하고 南冥은 器局峻整하고 才氣豪邁하여 超然自得特立獨行하여 學者難以爲要라고 대답하였다⁹⁾고 한다.

2. 學問精神

寒岡은 그 言行錄에 依하면 일찍이 學問에 뜻을 두고 항상 時文의 累를 慨歎하고 慨然히 求道의 뜻을 가지고 科場을 버리고 聖賢의 學問에 뜻을 오로지 하였다.

2) 寒岡先生年譜 卷之一, 卷之二參照, 寒岡全書下, 景仁文化社, 1979.

李家源退陶弟子列傳(三)參照, 退溪學報, 第三輯, 1974.

3) 寒岡先生年譜 卷之一.

4) 上同.

5) 上同.

6) 上同.

7) 寒岡先生年譜 卷之一.

8) 上同.

9) 寒岡先生年譜 卷之一.

先生十三歲時受易于德溪吳先生纘讀乾坤二卦餘皆推類通透吳先生大奇之嘗謂先生曰以公之英才大器必將出爲世用盡從俗取科而後惟意所欲爲也邪先生常歎時文之累慨然有求道之志既冠謝棄場屋專意聖賢之學 李厚慶¹⁰⁾

先生은 사사로히 게실때도 단정하게 持敬에 힘썼다.

先生雖在燕居之時惰慢之容不設於身體未嘗頃刻欹倚未嘗頃刻解衣時或閉目危坐凝然不動望之者泥塑人若不可親者而即之則溫溫如在春風之中矣 李筭¹¹⁾

先生二十二歲得鄭貢初試時先生志學甚篤絕意外慕赴京師不見試而還自是以後益加堅苦刻勵之工雖燕居之時未嘗脫上衣亦未嘗施惰容必夜深而寐鷄鳴而起終日危坐講讀不輟 李筭¹²⁾

先生은 每日 반드시 닭이 울면 이러나서 등을 밝히고 단정하게 앉아서 날이 셀때까지 講誦하고 或은 불을 끄고 앉아서 마음공부를 쉬지아니 하였으며 子弟들에게 收放心이 學者의 첫째 공부라고 하였다.

先生每日必鷄鳴而起明燈整坐講誦達曙或廢燈而坐涵養不息時或問于侍側子弟曰爾等之心方思何事方走何方收放心是學者第一工夫也 李筭¹³⁾

先生の 學問精神은 實踐窮行하는 精神이 퍼들고 있었다. 聖經賢傳을 읽는 法이 있으니 첫째 體認하고 둘째 體察하고 셋째 體驗하고 넷째 體行하여야 된다고 하였다.

先生語學者曰所貴乎讀書者非爲剽竊章句以成文章取科第而已讀聖賢經典其法有皿一日體認二日體察三回體驗四日體行苟不用此四法其義亦無以通曉況於吾身有心有何益焉古人黜式幾何不懼哉 郭起¹⁴⁾

宣祖六年에 擢山野操行之士를 命하였는데 東岡 金宇顯은 宣祖에게 “鄭述는 曾從 李滉學 又嘗往來曹植之門하여 學問이 通明하고 才局이 넉넉하다”¹⁵⁾고 하였다.

寒岡은 退溪가 易簣한 뒤에도 自身の 學問이 茫然無所進益함이 先師에 부끄러이 여겼고 先師를 追思永慕하였다.¹⁶⁾ 그 老境에는 舊居 遺祠 墓所에 重拜치 못함을 嘆하였다.¹⁷⁾

뿐만 아니라 寒岡이 安東府使로 赴任하였을때 巖棟軒에 假簷·平床을 增設하였다.¹⁸⁾

旅軒의 記錄에 의하면 寒岡은 退溪로서 準的을 삼았고 宋儒에서는 晦庵으로서 模範을 삼았다하니 그 制心·律己·居家·在官·事君·臨民 등의 모든 일에 모두 두 先生의 법을 그대로 따르고저 하였음을 짐작 할 수 있다.

10) 寒岡先生言行錄 卷之一 學問, 寒岡全書下冊, 356面.

11) 同.

12) 同.

13) 言行錄 卷之一.

14) 言行錄 卷之一.

15) 年譜 卷之一.

16) 答, 趙士敬書, 寒岡文集 卷三.

17) 與琴壠之書 寒岡文集 卷三.

18) 退溪全書四, 陶山及門諸賢錄 卷之三, 鄭述條

「……其在吾東所親接則以退溪爲準의 其在宋儒之大成則以晦庵爲模範所以制心律已居家在官事君臨民者一惟二先生是式焉（行狀）」¹⁹⁾

李家源教授는 “退陶弟子 列傳(三)”²⁰⁾에서 “寒岡은 실로 退溪의 수 많은 門弟子중에서 學問이 가장 純粹하고도 深遠한 경지에 이른 學者인 동시에 退溪와 恰似한 點이 많았는 듯 싶다”²¹⁾고 하고 첫째로는 混亂한 時代를 당하여 宦道에 뜻을 두지 않고 學問에 專心하였고, 둘째로 窮經著書로서 古今에 通博하였고 셋째로는 東西의 分黨에 超然한 姿勢를 지닌 것이라고 하고 있다.²²⁾ 이어서 溪門의 諸賢중에서 그 天資를 論하여 賁趾 南致利가 顏回와 같다면 寒岡은 曾參과 같을 것이요, 高峰 奇大升이 四七·理氣의 說에 高邁하다면 寒岡은 「心經」과 禮學에 深遠하였던 것이라고 하고 있다.²³⁾

Ⅲ. 民本主義 政治思想

1. 民本主義

理學에 따르면 天地人 三才中 人間이 가장 貴重한 존재이다.

程子는 :

上古聖人 始創八卦 三才之道 備矣……

라고 註釋하였다.²⁴⁾

朱子는 :

六齋者 伏羲所畫之卦也

라고 하였다.²⁵⁾

周易 繫辭傳에는 :

易之爲書也 廣大悉備하여 有天道焉하며 有人道焉하며 有地道焉하니 兼三才而兩之라 故로 六이니 六者는 非他也라 三才之道(繫辭下傳 第十章)

라 하였다.²⁶⁾

乾卦象辭에는 :

19) 寒岡先生年譜 卷之二, 行狀

20) 退溪學報 第三輯, 退溪學研究院, 1974.

21) 上揭論文集, 十七面

22) 上同.

23) 上同.

24) 周易 乾卦 卦辭 程傳, 備旨具解原本周易, 朝鮮圖書株式會社, 1923년에 의함.

25) 上同.

26) 上同.

大明終始하면 六位時成하나니 時乘六龍하여 以御天하느니라……

하고 文淵에는 :

夫大人者는 與天地合其德하며 與日月合其明하며 與四時合其序하며 與鬼神合其吉凶하야 先天
而天弗違하며 後天而奉天 時하나니 天且弗違은 而況於人乎며 況於鬼神乎여

라 하였다.

中庸에는 :

致中和면 天地位焉하며 萬物이 育焉이니라.

하였다.

周易序卦傳 下篇에는 :

有天地然後에 有萬物하고 有萬物然後에 有男女하고 有男女然後에 有夫婦하고 有夫婦然後에
有父子하고 有父子然後에 有君臣하고 有君臣然後에 有上下하고 有上下然後에 禮義有所錯이니라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理學의 宇宙論에서 人本主義와 民本主義思想이 自明해지는 것이다

退溪는 戊辰年(1568年) 8월 68세 때에 새로 17세로 登極한 宣祖에게 六條疏를 올리고
같은 해 12월에 聖學十圖를 올렸다.

進聖學十圖劄에 의하면 :

道는 形象이 없고 天은 말이 없는데 河圖洛書가 나옴으로부터 聖人이 그것에 因하여 卦爻를
지으니 道가 비로소 天下에 나타났다.

道無形象天無言語自河洛圖書之出聖人因作卦爻而道始見於天下矣²⁷⁾

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림과 그 說明은 겨우 열幅 紙上에 적어 놓은데 不過하고 생각하고 익히는 공부는 다만 平
日 燕處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지만 道를 깨달아 聖人이 되는 要領과 근본을 바로잡아 政治를
경륜하는 根源이 모두 여기에 갖추어 있다.

……凝道作聖之要端本出治之源悉其於是惟在²⁸⁾

라고 하였다. 그리고 戊辰六條疏에는 :

聖學을 敦篤히 하야 政治의 根本을 세우라
敦聖學以立治本

라고 하였다.

27) 增補退溪全書一,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8.

28) 上同.

2. 君道와 爲民政治

宣祖十三年 庚辰(1580年) 寒岡이 三十八歲에 昌寧縣監을 拜受하고 宣祖・임금과 問答이 있었다.²⁹⁾

일찌기 大學을 배웠다고 대답하니 다시 大學공부는 무엇이 요체냐고 묻기에 三綱領八條目인 데 修己治人의 방편이 아님이 없고 先儒의 말이 있으니 仁德 王道의 그 요체가 다만 謹獨에 있다고 하니 帝王의 學은 出治의 根本이라 精一之功과 萬化之原이 謹獨에 있지 아님이 하나도 없다고 대답하였다.

다시 縣의 治民을 무엇으로 할것인가 그리고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古人이 若保赤子라 일렀으니 이말을 일삼아서 먼저 興學하고자 한다고 대답하였다.

問爾讀何書對曰臣嘗學大學書問大學工夫何者爲要對曰三綱領八條目無非修己治人之方也而先儒有言天德王道其要只在謹獨帝王之學出治之本精一之功萬化之原無一不在於謹獨上惟立志與有爲實問爾其之縣何以治民又將奚先對曰臣本才疎學淺惟恐不堪但古人云若保赤子臣雖不敏請事斯語而願先興學焉宣祖深加嘆賞曰爾名不虛得矣(年譜 庚辰)

여기서 寒岡의 政治思想은 明善의 修己治人主義이며 王道의 요체가 謹獨에 있다고 하고 精一之功과 萬化之原이 이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帝王의 學이 出治의 根本이라고 하여 王道는 聖學에서 이탈 될 수 없다는 것이된다.

爲民政治는 若保赤子의 마음가짐이 가장 요긴하며 地方官으로써 먼저 할 일이 興學하고자 하였다.

이 興學은 修己治人主義의 具現에 있어서 知行並進의 길이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할 것이다.

退溪는 일찍 戊辰六條疏에서「敦聖學以立治本」 곧 聖學을 敦篤히 하여 政治의 根本을 세우라고 進言하였다.

臣은 듣자오니 帝王의 學과 心法의 要는 大舜이 禹에게 命한 말에 淵源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人心惟危道心惟微精惟一允執厥中」이라고 하였습니다. 내저 天下相傳에 즈음하여 天下를 편안하게 하고저 부탁하는 말이니 政治에 있어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없거니와 舜이 禹에게 丁寧告戒하는 말이 이 몇마디에 불과하니 學問成德으로써 政治하는 大本을 삼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精一執中은 爲學의 大法이며 大法으로써 大本을 세우면 天下의 政治는 다 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옛 聖人의 말씀이 이러함으로 臣같은 어리석은 자도 聖學이 至治의 根本이 됨을 알고 외람되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하온데 舜의 이 말은 그 危微한 까닭은 말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精一하는 法을 보여주지 아니하여 뒷 사람이 이에 依據하여 道를 진실로 알고 진실로 實踐하려고 하여도 어렵게 되었읍니다. 그 뒤에 列聖이 서로 이어 孔子에 이르러 그 法이 크게 갖추어지니 大學의 格致誠正과 中庸의 明善誠身이 그것입니다. 그 뒤 諸儒가 번갈아 일어나 朱子에 이르러 그 說이 크게 밝아지니 大學 中庸의 章句 或問이 그것입니다. 이 두 冊을 배워

29) 寒岡全書下, 年譜卷一.

眞知實踐의 학문을 하면 中天에 해가 뜬 것같이 눈이 뜨면 다 보이고 큰 길이 앞에 트인 것 같아서 밭을 들면 밭을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세상의 人君으로서 能히 이 學問에 뜻을 두는 사람이 적습니다. 或 뜻을 두더라도 能히 有始有終한 사람이 더욱 적습니다. 嗚呼라 이것이 道가 傳하지 못하고 政治가 옛 적과 같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其三曰教聖學之立治本臣聞帝王之學心法之要淵源於大舜之命禹丁寧告戒不過如此者豈不以學問成德爲治之大本也精一執中爲學之大法也以大法而立大本則天下之政治皆自此而出乎古惟之聖謨若此故雖以如臣之愚亦知聖學爲至治之本而僭有獻焉雖然舜之此言但道其危微而不及其危微之故但教以精一而不示以精一之法後之人雖欲據此而眞知實踐乎道殆亦難矣其後列聖相承至孔氏而其法大備大學之格致誠正中庸之明善誠身是也諸儒迭興逮朱氏而其說大明大學中庸之章白或問是也今從事於二書而爲眞知實踐之學比如大明中天開眼可都如周道當前舉足可履所慮世之人君能有此學者鮮矣其或有志而能有始有終者爲尤鮮嗚呼此道之所以不傳治之所以不古也……³⁰⁾

宣祖 三十八年(1605年) 乙未, 寒岡이 五十三歲때 經筵進講易傳할새 宣祖임금이 물기를 程傳과 朱子의 本義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가 하였다. 寒岡이 대답해 말하기를:

易의 道體이 消息盈虛의 理致와 進退存亡의 기틀이 時中을 잃지 않게 밝히는 것이요 만약 한갓 占候로 일 삼으면 末이니 마땅히 程傳으로 먼저 함이라고 하였다. 다시 물기를 朱子가 韓託胄가 일을 제마음대로 하고 趙如愚가 罪를 임음에 疏를 갖추에 奸邪한 狀況을 極論하였는데 만약 疏가 들어갔다면 宋나라가 거의 다스려 졌을 터인데 도리어 遷卦를 만났으니 占筮의 道가 天下의 지극히 신그러운 것이라 할 수 없지 않을 까 그리고 朱子가 꼭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은 무엇인가 하였다.

대답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宋나라 寧宗으로 하여금 과연 우리 聖教와 같이 疏를 보게 하였다면 문득 託胄를 내친즉 그 筮가 반드시 遷을 만나지 안하였을 것이므로 이 占筮가 지극히 신그러운 바입니다.

고 하였다.

一日入侍 經筵進講易傳 宣祖問程傳本義何先生生對曰易之爲道惟明乎消息盈虛之理進退存亡之機以不失乎時中若徒以占候爲事則末矣當以程傳爲先也又 問朱子以韓託胄用事趙如愚被罪乃具封事極論奸邪之狀疏若入則宋國其庶幾矣而反遇遷卦占筮之道不可謂天下之至神而朱子之必決於此者何也先生對曰不然若使宋寧宗果能如聖教一見封事便黜託胄則其筮必不遇遷此占筮之所以至神也 天頗有喜 僚席心歎³¹⁾

여기서 寒岡 易傳에 있어서 程傳을 먼저 하면서 程朱說을 위주로 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疏劄의 忠諫이 君主를 聖君이 되게 하고 그것이 爲民의 한 방편이라는 思想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寒岡이 六十六歲때 새로 即位한 光海君에게 올리려다 그만둔 戊申年(1608年)의 「擬上劄」에 依하면 君主는 「天地」이며 「父母」이다. 그리고 「仁政」이 爲民政治가 된다고 믿었으며 백성을 悅服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仁政은 마음(心)

30) 戊辰六條疏, 其三, 增補退溪全書, , 184面.

31) 年譜 卷一.

에 根源하며 政事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틀리는 것과 諫하여야 할 것은 舜과 湯도 뵈지 못하였는데 다만 도와달라고 請한 것과 諫하는 말을 좇아 拒絕하지 않는 것이 舜과 湯이 된 까닭이라는 것이다. 國家의 大務는 백성을 愛恤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이 國家大務의 근본은 紀綱이며 이 紀綱의 根本은 君主의 正心에 있다는 것이다. 民本主義思想에 있어서 民心은 매우 重要的 것이다. 寒岡은 民心을 편안하게 할 것을 매우 치고 있다. 人心이 操心과 放心이 혹 몇몇함이 能치 못하니 옛 사람이 말한 精一 明誠의 學에 뜻을 두고 마음을 닦는 데에 切實한 글을 親近히 하고 忠誠스럽고 바른 말을 가상히 여겨 받아들여 心地에 물데듯하고 本原을 涵養하는 도움을 삼아서 마음으로 하여금 嚴恭寅畏虛明靜一하게 하면 止水의 未波와 같고 거울의 티끌이 끼지 않는 것같이서 티끌만큼도 사사로움에 가려지지 않고 또한 私欲의 累도 없을 것이라 한다. 이치를 觀察함에는 毫釐의 틀림이라도 있을까 조심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過不及의 틀림이 있을까 염려하여 항상 마음을 大中至正한 곳에 두어서 大中至正한 體로 하여금 마음에 밝아서 어둡지 않고 大中至正한 用으로 하여금 朝廷위에 순하게 막힘이 없게 하면 便嬖側媚의 사사로움과 幽邪庸謬의 미혹이 敢히 耳目이 미치는 바에 干犯함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요컨대 君主는 聖學에 힘써서 聖德이 날로 盛하게 하는 것이 王道에 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擬上劄 戊申

……聖慈天地父母……臣竊觀殿下臨御之初仁聞藹然仁政洽然舉措施施暗合古聖延頸舉踵之民莫不歡欣各自滿足臣不勝悅服贊歎願殿下毋忘今日之心毋懈今日之政也然舜之命禹曰予違汝弼則舜亦有違焉者乎伊尹之稱湯曰從諫弗咎則湯亦有可諫者乎然則違與可諫舜湯亦所不免而唯其許弼而弗咎所以爲舜湯也然則今日亦豈無爲殿下可言者哉唯殿下省納而弗咎焉則希舜希湯之幾其不在是乎頃日殿下之命臣曰正色立朝以振綱綱又曰爲國莫急於先正紀綱臣常感激竊誦大猷之言而緣臣疲劣且長伏病告之中未有以奉揚聖教之一分此臣所以深悲永羞死且不能瞋目者也然所謂紀綱之要則臣竊嘗聞之矣宋臣朱熹論天下國家之大務而以謂莫大於恤民恤民之實在省賦省賦之實在治軍而又推其本以爲在人君正其心術以立紀綱而已矣此言紀綱當天下國家大務之本而又其本則在於人主之正心矣又曰所謂紀綱者辨賢否而定上下覈功罪而公賞罰其所以振之者則宰執秉持而不敢失臺諫補察而無所私人主又以大公至正之心恭已於上而照臨之是以賢者必上不肖者必下有功者必賞有罪者必刑而萬事之統無所闕也此亦紀綱之要在乎宰執臺諫而其本則又在人主大公至正之心人主苟以大公至正之心恭已照臨於上焉則舉一國臣民孰敢不矜養飭勵於宰相之秉持臺諫之無所私哉名節行檢自然成風而奔競締結之習不期掃而自去矣……聖上之倚重大臣任之勿貳之意則已爲缺然而茲下之相與失望而爲之解體者其可以人人而曉諭乎臺諫者人主之耳目也政院者人主之喉舌也四目之明四聰之達苟不由是焉人主不以爲聰明也……今日至要惟在人心而人心蓋已洽然……人主之一心臣竊惟殿下之心廓然大公無邪之惑而人心之操舍或不能常焉則古人所謂精一明誠之學願下之有以致意焉而亮陰觀禮之暇親近切已之書嘉納忠諫之論以爲澆灌心地涵養本原之助使方寸之間嚴恭寅畏虛明靜一如止水之未波明鏡之未塵無蔽於一毫之私意無累於一毫之私欲顯理而慮有毫釐之差處事而慮有過不及之謬常宅心於大中至正之域使大中至正之體皎然不昧於殿下之方寸而大中至正之用沛然無滯於朝廷之上則便嬖側媚之私幽邪庸謬之惑其有敢干於耳目之所及者乎臣將

見聖學日新聖德日茂奮發有爲振整綱紀聖治亦日以著直追古先哲王之世其寧有遺憾矣³²⁾

寒岡이 71歲때인 光海君 5年(1613年) 癸丑年에 劄子를 올렸다. 그런데 光海君은 黨爭의 소용들이 속에서 奸臣 小人輩의 간사한 꾀에 휘말리어 그의 治世동안 後世에 알려진 史實은 臨海君과 延興府院君 金悌男 그리고 永昌大君의 殺害와 仁穆大妃의 西宮幽閉등의 事件이 있었다. 光海君이 即位한 다음해인 戊申年(1609年)에 臨海君이 살해됐고 光海君 5年(1613年) 癸丑年 5월에 永昌大君이 庶人으로 쫓겨어나고 六月 一日에는 金悌男이 사사되었다. 八月에 永昌大君을 江華에 園籬安置시켰으나 이듬해 甲寅年(1614年) 2월에 살해하였다. 金悌男과 永昌의 죽음은 仁穆大妃의 身上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光海君 10年(1618年) 戊午年에 王은 大妃의 칭호를 깎고 西宮에 패출시켰다.

이와 같은 事件으로 말미암아 光海君은 後世에 폐륜의 누명을 쓰게 되었지만 이는 光海君自身의 意志로 된 것이 아니고 大北派의 끈덕진 策略에 끌려들어간 것이라고도 한다.³³⁾

癸丑劄子에 依하면 聖明은 天地父母이시니 위와 같은 소용들이 속에서 君主는 「有以矜諒焉」하고 前古帝王의 이미 지난간 자취를 博考하고 옛 聖人의 處變한 道를 깊이 생각해서 經重을 權經에 참작하고 常과 變에 치우치지 않기를 생각하여 至理의 當然한 것을 살피고 聖心에 반드시 편안한 것을 구하여 내지 있는 것으로 하여금 一毫의 不愜도 없게 하여 盡善, 盡美한즉 四方이 모두 기뻐하고 後世에 法範을 것이라고 한다.

……聖明天地父母有以矜諒焉……伏願殿下博考前古帝王已往之蹟深惟古聖人處變之道酌輕重於權經思不備於常變審至理之當然求必安於聖心使在我者無一毫之不愜爲盡美而盡善焉則四方咸悅後世取則(癸丑劄子)³⁴⁾

그리고 癸丑再劄에 의하면 孝友의 盛實함이 人倫의 지극함이 되어 비록 百世를 기다려도 疑惑이 없을 것이라고 하고있다.

再劄

……聖上孝友之盛實爲人倫之至雖百世以俟而無惑者也.³⁵⁾

程子が 말하기를 君道는 至誠仁愛로서 根本을 삼고 正心窒欲으로서 求賢育材를 먼저 한다고 하였다. 또 君道는 人心을 悅服케 함으로써 근본을 삼는다고 하였다.

程子曰君道以至誠仁愛爲本又曰大要以正心窒欲求賢育材爲先又曰人主當防未萌之欲. 君道以人心悅服爲本³⁶⁾

32) 寒岡先生文集 卷二.

33) 韓國人物全集 4, p. 29, 三潮社, 1977.

34) 文集 卷二.

35) 文集 卷二.

寒岡이 宣祖 二十一年 戊子에 46歲로 通善郎에 오르고 五月에는 朝奉大夫로 轉任되었으나 8월에 謝病歸鄉하였는데 郡民이 頌德碑를 세웠다. 그 碑文에 「……政以敦孝悌獎節義崇儒重祀爲先而嚴明清慎吏憚民和及……」의 句節이 있다. 年譜 卷一.

36) 性理大全書 卷之六十五 君道.

朱子는 天下의 紀綱이 能히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임금의 心術이 公平正大하고 偏黨反側의 사사로움이 없는 뒤에야 선다는 것이다.

朱子曰天下之紀綱不能以自立必人主之心術公平正大無偏黨反側之私然後紀綱有所繫而立³⁷⁾

그리고 君主의 마음은 能히 제대로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親賢臣, 遠小人하고 義理의 돌아감을 講明하고 사사로운 길을 閉塞한 뒤에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한다.

君心不能以自正必親賢臣遠小人講明義理之歸閉塞私邪之路然後乃可得而正³⁸⁾

癸丑再劄에는 또 春秋의 義理에 의거하여 睿斷함에 참작하고 상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고 舜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魯襄公 30년에³⁹⁾ 周景王이 賊臣 詹括이 있어 난을 구며 王子 倭夫를 세우고자 하였는데 倭夫는 곧 景王의 아우로서 실상은 詹括이 자기를 세우려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아니되어서 일이 발각되어 詹括이 도망해버리니 尹書多 劉穀등 다섯 사람이 함께 倭夫를 죽였는데 景王의 命이 아니었습니다. 孔子가 「春秋」에 쓰기를 「天王이 그 아우 倭夫를 죽였다」 했으니 後世先儒들이 논하여 말했습니다. 무릇 임금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쓰지 않고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을 죽여야만 쓰는 것이다. 대저 天子는 사람을 오로지 죽일 수 있으므로 倭夫의 죽음을 쓸 것이 아닌데도 筆法을 이같이 하였으니 倭夫가 역모에 參與치 않은 것을 알고 孔子께서 대개 罪없는 것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 정상을 캐내어 法에 의거하는 뜻이 어찌 深切하고 著名하지 않습니까. 또 倭夫의 죽음은 처음부터 景王이 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금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春秋」의 의리를 해석하여 左氏는 말하기를 「罪가 王에게 있다」 하였고 穀梁子는 말하기를 「너무 甚한 것이다」 하였고 杜預는 말하기를 「骨肉을 害친 것이다」 하였고 景王의 累됨이 어떠한지. 그렇다면 景王의 허들은 다섯 大夫가 이루어 놓은 것이니 오늘날의 일이 우연히도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리고 어두워서 무식함이 또 다만 倭夫의 알지 못하는 것 뿐이었습니까…… 臣이 前後에 진달한 것을 깊이 양찰하여서 여러 의론에 흔들리지 마시고 대의를 정하게 살피고 大倫을 온전히 하시면 聖上의 마음이 태연하여 유감이 없고 성상의 몸이 盡善盡美하여 後世에 가서 오늘을 보는 것이 지금에서 옛 聖人을 보는 것과 같아서 모두가 法탄을 것이니 어찌 盛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살피 보면 임금을 허물 없는 땅에 인도하는 것이 신하된 자의 지극한 소원이니(苟有所慕焉則納君於無過之地人臣之至願)……부자간의 큰 은혜는 하늘과 더불어 다함이 없는 것이니 혹 變에 처하는 것은 모두 道理가 있습니다. 常과 變이 한결같지 않고 順과 逆이 형세가 달라서 내게 있어 酬應하기가 또한 쉽고 어려움이 같지 않는 것이니 한번 幾微를 잃으면 곧 覆累가 되니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 신하된 사람은 궁을 지나다가 땅에 엎드려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으로써 임금을 권면하였는데, 지금의 말하는 자는 별궁에 따로 처하게 하는 것으로써 청하니 신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엎드려 원하건데, 전하는 오직 옛

37) 性理大全書 卷之六十五 君道.

38) 性理大全書 卷之六十四 君道.

39) 春秋左氏傳, 魯襄公 30年, 經에는 「天王殺其弟倭夫 王子瑕奔晉, 傳에는 「初王 詹季卒其子括將見王而敕軍公子愆期爲靈王御士過諸廷問 其欺而言曰嗚呼必有此夫入以告王且必殺之不慙而顧大視躁而足高心在他矣不殺必害王曰童子何知及靈王崩詹括欲立王子倭夫倭夫 弗知戊子詹括圍葛逐成愆成愆奔平時五月癸巳尹書多劉穀單慶甘過羣成殺倭夫括瑕奔晉書曰天王殺其弟倭夫罪在王也」로 되어 있다. (春秋左氏傳, 保景文化社, 1983에 의함)

聖人の 蒸蒸의 뜻을 깊히 생각하시고 만일 舜이 오늘에 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벽과 밤으로 전전궁궁하여 반드시 舜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아서 天下에는 옮지 않는 부모란 없다이니 전날의 섬기던 것과 조금도 변함이 없게 하시면 舜이 된 것도 또한 이것을 넘지 않는 것이니 오직 더 험술 뿐입니다. 대개 부득이한 것은 宗社의 大計요 自盡의 道를 쫓 수 있는 것은 母子의 至情이니 스스로 다할 수 있는 도리에는 많은 말이 필요없고 오직 包含하고 隱忍하여 더욱 聖志를 굳게 하는데 있으니 설령 行言이 있더라도 감히 가까이 하지 말고 孝順의 道를 극진히 하고 愛敬의 이치를 다하여 至誠 惻怛하여 오래 쌓아서 말지 않으면 藹然히 밀어치고 감동되는 것이 있지 않겠음니까. 處하기를 지극하고 다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벗어날 것이 없으니 天下의 父子된 자가 定하여지고 舜이 功을 남기게 되는 것이 그 기미는 온전히 전하의 神化의 運用에 있습니다. 대저 이같이 하시면 羣阻와 무리의 시끄러움이 다치 구름 사라지듯 하고 안개 흩어지듯 하여 深微하고 觀欣하여 화기가 融融할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습니까.

再劄

……昔者魯襄公三十年周景王有賊臣詹括造亂欲立王子侯夫侯夫即景王之弟實不知詹括之立已也未幾事發詹括出奔尹言多劉穀等五人共殺侯夫非王命也孔子書之曰天王殺其弟侯夫先儒論之以爲凡王殺下書必殺無罪而後書夫天子主專殺侯夫之死宜不書而書法如是侯夫之不與聞聖人蓋以無罪處之矣其原情按法之豈不深切而著明也哉且侯夫之死初不出於景王特莫之禁也爾然而解春秋之義而左氏則曰罪在王也穀梁子則曰甚之也杜預則曰殘骨肉也其爲景王之累何如哉然則景王之過五大夫成之也今日之事偶然如有所彷彿焉者其釋味無職則又非但侯夫之不知也矣……苟有所察焉則納君於無過之地人臣之至願……伏願深諒臣前後所陳勿爲羣議所撓以精大義以全大倫則聖心泰然而無憾聖躬盡美而盡善後世之視今猶今之視古聖人也成來則焉豈不盛哉……父子大息與天無極其或處變皆有道理然常變不一順逆異勢在我爾應亦有難易之不倖一失幾微便成累累不可以不審也古之人臣以過宮伏地積誠格心勉君而今之言者乃以別宮異處請焉臣所未曉也然臣何敢盡其言哉伏願殿下惟深思古聖人蒸蒸之意以爲使之處於今日則當如何哉夙宵戰兢必以舜之心爲心謂天下無不是底者而一無變於前日之所以事之者言則其所以爲舜亦不越乎是正惟加勉焉而已矣蓋其所不得已者宗社之大計有以伸自盡者母子之至情其所自盡不容多言惟在包含隱忍益堅聖志設有行言靡或敢近極孝順之道畢受敬之理至誠惻怛積久不已其不有藹然乎感者乎處之至矣盡矣者無出乎此天下之爲父子者定而爲舜功焉其幾全在殿下神化之運夫如是則羣阻衆慝廓然若雲消而霧散沕穆歡欣和氣冲融豈不懿哉⁴⁰⁾(癸丑再劄)

寒岡이 光海君 九年(1617年) 丁巳年 75歲때에 慈殿內主咀呪外應逆謀說⁴¹⁾를 듣고 울리려다 그만둔 「丁巳擬上疏」⁴²⁾에 의하면, 안으로는咀呪를 일삼고 밖으로는逆謀에應하였으니 母子의 恩義가 대체 이미 끊어졌다고 하고, 날로 舜을 죽이기로 일삼는 父母에게 帝舜이 대치한 것은 怨慕할 뿐이며 號泣할 뿐 자식의 직분은 恭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虞나라 朝廷의 羣臣이 임금을 위하여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야 어찌 한이 있었을까마는 處變하는데 言及한 말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남의 자식이 되고 신하가 된 자가 마땅히 準則을 삼아 法받을 것이 아니냐고 하고있다.

宗社의 大逆이 되고 天下의 大罪를 진 耆가 唐나라 武曌같은 이 있을까마는 뒷날 宋나라 신하 張栻은 당시에 廢하지 못한 것을 깊이 病되게 생각했는데 朱熹가 「中宗으로서는 결코 감히 어미를 내쫓는 일을 할 수 없다」고 論함을 두고, 寒岡은 君臣父子의 義

40) 文集 卷二.

41) 年譜 卷一.

42) 文集 卷二.

가 이와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武聖가 어미 노릇을 못하였어도 朱子의 立論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義理의 精微한 것이 萬古에 마땅히 法받을 것이 어찌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지금울 가지고 옛것을 準하여 본다면 母子의 恩義가 이미 끊어졌고 宗會의 辱됨이 이미 甚하다 하더라도 「廢」의 한 字에 이르러서는 一毫라도 마음에 싹터서 朱子의 敎訓에 배치될 수는 없는 것이니 마땅히 더욱 자식의 職分을 恭遜히 하여 至極한 人倫을 온전히 함으로써 虞舜의 大孝를 法받으면 어찌 天下에 말이 있고 百世를 기다려도 의혹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正論을 扶植하고 聖孝를 넓히고 暢達하여 卓然히 萬世의 師法이 되는 그 기회가 어찌 오늘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겠느냐는 것이다.

大聖人의 하는일은 靑天의 白日같이 天下 後世에 함께 우러러 볼 수 있어야 할 것인 즉 오히려 綱常大倫에 一毫의 잘못이 있어서는 않된다. 만약에 大恩이 이미 끊어졌고 지독한 원수를 그냥둘 수 없다고 하여 오늘의 廢論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大義가 먼저 무너지고 큰 독이 먼저 허무러질 것이니 他日 地下에서 장차 先王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며 太廟에 무슨 낮으로 薦享할 수 있겠느냐고 한다.

지난 千古에도 없었던 바이며 뒷날 萬世에도 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中國에 대해서도 說得하기 어려운 바이며 先王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바요, 卿相碩德이 未發하는 바이며 乙夜에 聖念이 깊이 아파하던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寒岡은 綱常大倫을 聖賢의 垂範 垂訓을 들어 有德者爲君을 通한 爲民 輔國의 民本主義政治思想을 發揮하고 있다.

丁巳擬上疏

……內主阻呪外應逆謀母子之恩蓋已絕矣其爲宗社之憤孰有甚所以今日之舉措萬不他顧而爭倡不已也然而與天無極之倫攢截萬古而爲經爲緯自古聖賢亦豈全無此等變故而未始有聞恐不可不爲之深思而不勝一朝之痛終貽萬古之羞也日以殺舜爲事之父母而帝舜之所以處之者則怨慕而已號泣而已子職則不得不恭爲焉虞廷羣臣爲君欲離之心寧有紀極而亦未聞有一言及於處變此豈非萬古爲人子爲人臣者之所當則而法焉者乎爲宗社之大逆負天下之大罪者孰有如唐之武曌至於宋臣張式深以當時不廢爲病而朱熹之論則以爲在中宗則決不敢爲黜母之事臣嘗讀朱子之書以爲君臣父子之義其嚴若是雖以武曌之不母而朱子之立論如是真是義理精微處萬古之所當法者豈不在是以今準古則母子之恩固已絕矣宗社之辱固已甚矣至於廢之一字不合一毫有萌於心以負朱子之教宜益恭子職以全至倫以體虞舜之孝豈不有辭於天下而百世以俟而無惑者乎竊念此論雖不得不有而精微折衷之辨則當斷自聖衷扶植正論弘暢聖孝卓然爲萬世之師法其幾豈不在今日乎……大聖人所作爲當如靑天白日爲天下後世之所共觀而顧乃於綱常大倫而容一毫未盡善者乎如以爲大意已絕至離難棄不得不徇今日之論則大義當先壞大防當先毀他日地下殿下將何以有辭於先王出入大廟亦何以爲顏於薦享乎前千古之取未有後萬世之所未法爲天朝之所難說爲先王之所難辭爲卿相碩德之所未發爲乙夜聖念之所深痛

孔子는 孝가 德의 根本이며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子曰夫孝德之本也教之所由生也⁴²⁾

42) 孝經 開宗明義章第一.

사람의 行함이 孝보다 더 큰 것이 없으므로 德의 根本이 된다. 孝는 至德要道也라 仁義禮智를 雖皆謂之德이나 而仁이 爲本心之全德이라 仁을 主於愛하고 愛는 莫大於愛親故로 孝爲德之至오 父子君臣夫婦兄弟朋友之交五者는 雖皆謂之道나 而親生膝下하여 行之最先故로 子孝於父獨爲道之要라 本은 猶根也라 行人이 必自孝始하니 君子親親而仁民하고 仁民而愛物하야 一念之發이 生生不窮이 猶本之有根也라 聖人이 以五常之道로 立教하시니 本立則道生하야 移之以事君則忠矣오 資之以事長則順矣오 施之於閭門則夫婦利矣오 行之於鄉黨則朋友信矣니 充拓得去하면 舉天下之大에 無一物而存吾仁之中하고 無事而不在吾孝中出하나니 故로 曰教之所由生이니라⁴³⁾

孔子的 말씀은 계속된다.

제 父母를 사랑하는 耆는 敢히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제 父母를 恭敬하는 耆는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못하나니 사랑하고 恭敬하는 마음을 제 父母에게 다하고 보면 德스러운 가르침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쳐서 天下가 본받게 될 것이다라고 天子의 孝를 말하였다.

愛親者不敢惡於人敬親者不敢慢於人愛敬盡於事親而德教加於百姓刑于四道蓋天子之孝也

孔子는 말씀하였다 :

옛날 聖王의 治天下에 지극한 德과 중요한 道가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順하게 했기 때문에 天下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고 친목해서 上下가 모두 아무런 원망도 없었다.

子曰先王有至德要道以順天下民用和睦上下無怨⁴⁴⁾

3. 著 述

寒岡의 著述이 매우 浩辭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性理學 禮學 歷史傳記 各地方의 地志 醫學 文學等 여러 分野에 걸친 著述이다.

寒岡은 內職은 거의 다 辭退하고 外職에 대해서는 대체로 赴任하였다. 이는 中央政局의 黨爭의 소용돌이에서 超然하면서 爲民爲國의 政治的 信念과 爲己之學의 정신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 著述 또한 浩辭한 가운데 醫眼集方이나 廣嗣續集, 地方地志, 禮學分野의 著述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寒岡의 醫學分野의 著述을 應用救時의 精神에서 나온 것이라⁴⁵⁾고 하기도 한다.

醫眼集方은 寒岡이 成川府使로 있을 때 오른쪽 눈에 탈이 나서 이로 말미암아 많은 醫學書에서 눈에 관한 부분을 抄寫하고 거기에 本草單方과 鍼灸諸經을 첨부해서 만든 것이고 廣嗣續集은 産兒 育兒에 관한 醫學書이다. 이 책은 俞子木의 「廣嗣」라는 책에 寒岡이 未備한 點을 補完하기 위하여 家藏 醫學書를 두루 상고하고 해당 항목을 따로 모아 續集을 만든 것이라⁴⁶⁾고 한다.

43) 修旨原本孝經集註, 世昌書館刊行.

44) 孝經 開宗明義

다음을 아울러 參照.

李民樹譯 孝經(外) 乙酉文庫, 1972.

邢昺, 孝經注疏, 臺灣中華書局印行 中華民國六十八年.

45) 李佑成 寒岡全書 解題, 寒岡全書上, 醫眼集方序, 文集卷下.

46) 廣嗣續集序, 寒岡文集卷十.

寒岡이 外職으로 가는 그 地方의 山川, 物産, 古蹟, 人情風俗 등을 調査蒐集하여 地志를 지었다.

咸州志序에서 所望인즉 이곳에서 寒岡은 宣祖十九年(1586) 丙戌二月에 慶尚道都事를 拜受하였으나 不赴하고 八月에 咸安郡守를 拜受하여 疏辭를 올렸으나 允許하지 않음으로 十月에 赴任하였다.⁴⁷⁾

다음 해에 咸州志가 이루어졌으니 寒岡이 45歲⁴⁸⁾ 丁亥年의 일이다.

다음은 그 序文의 일부이다.

백성의 가난함이 비록 토지의 척박과 하늘의 재변으로 말미암지마는 부역의 번다함과 刑政의 가혹함으로 苛虐(苛虐)에 여가 없으면 비록 沃土의 백성들을 이(政治)에 처하게 한들 능히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겠는가.

俗漓는 오랜 風土로 말미암는데 교화하는데 근본이 없고 禮讓도 흥기시키지 않고 법령이 이렇게 엄하니 비록 淳質의 土로 교화를 말게 한들 능히 스스로 잘 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文은 날로 위축되어가고 변방의 급함이 날로 심해져 微毒이 이렇게 번잡하고 책임을 꾸짖기가 이렇게 준엄하니 守令된 자가 문서의 처리에 곤궁해서 이 근심을 살피지 못하니 어찌 백성의 요긴한 곳과 선비를 훈도하는 방향에 유의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탐악 사록 잔폭한 관리와 교묘히 꾸미고 명예를 구하는 士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듣고 싫어하는 바는 아니나 또한 어찌 그 사이에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今日の 말한 바는 아니다. 오직今日の 바람은 長民이 된자(牧民官)는 썬 앞에서 한 말들을 깊이 경계삼아 그 기틀이 있는 바를 살피고, 더우기 그 근본에 힘을 써서 백성을 편안히 하고 중속을 착하게 하는 요체에 소홀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미치는 바는 특히 내가 감히 말하지 못하나 또한 내가 감히 해아리지 못할 일이다. 내 비록 말을 안 하고자 하나 또한 어찌 말을 안 할 수 있겠는가.

한편 일반 백성(編民)들은 물러나 스스로 그 분수에 편한 바를 생각할 것이니 농사에 힘쓰며 학문에 힘을 써서 날로 부지런히 하여 위로는 公家의 부역에 힘을 하고 아터로는 持身 居家의 방도를 잃지 않으면 친척과 이웃이 서로 화목하고 長幼有序가 있어서 연다강구하고 깊이 공부에 나아가 스스로 덕득하여 한 고을의 習俗으로 하여금 함께 서로 仁義道德의 場으로 으르게 하여 임금의 문체나는 교화에 부끄러움이 없도록하는 이것이 今日 가슴에 깊이 새길 것이며 내가 탄식하는 깊은 뜻이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民貧雖由於地瘠天災而賦役煩刑政之苛叫蠶驟突之不暇則雖使沃土之民處焉其有能自保者乎俗漓雖由於風土六舊而教化無本禮讓不興惟法令繩律之是嚴則雖使淳質之土當之其有能自淑者乎況文移曰委邊警日劇微毒是煩訶責是峻爲守令者方且困於期會簿書之間而不聞是憂焉遠有臨意於生民之要迪士之方者乎至於貪邪殘暴之吏巧飾干譽之士誠非吾之所欲聞而亦豈保必無於其間哉然非今日之所宜道也唯今日之所望則爲長民於茲焉者有以深警夫前之所言者而審其幾之所在益加勉乎其本而毋忽於安民善俗之要則其効之所及殊非余之所敢言而有非余六所敢量者余雖欲不言而又安得不言哉至於爲編戶於茲焉者亦退而思所以自安夫其分也力穡學僦焉曰惟孜孜上既謹乎公家之賦而下不失持身居家六方親鄰相睦少長順序磨礪講究深得俾一郡之習俗共相躋於仁義道德之場而無愧於當宁文明之化則斯今日所拳拳者而余之所以發嘆之深意實在於茲云萬曆丁亥秋八月壬申郡守西原鄭述序⁴⁹⁾

寒岡의 著述을 위와 같이 考察한 바에 따라서 그의 爲民爲國의 民本主義政治理念의

47) 年譜 卷一, 丙戌條.

48) 年譜 卷一, 丁亥條.

49) 文集 卷十.

한 갈래 志向性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Ⅳ. 「心經發揮」

1. 「心經」과 「心經附註」

寒岡의 著述 「心經發揮」以前에 心學의 著書⁵⁰⁾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살펴본다.

「心經」은 程·朱學者 西山 眞德秀가 편찬한 것이라고 傳해진다. 西山이 편찬한 「心經」은 「書經」「詩經」「易經」에서 8篇, 「論語」「中庸」「大學」「孟子」에서 19篇, 「禮記」에서 3篇, 周子의 글에서 2篇, 程子의 글에서 1篇, 范氏의 글에서 1篇, 朱子의 글에서 3篇, 모두 37篇의 글을 추리고 每章마다 朱子, 程子, 그밖의 약간의 말을 引用하여 註釋을 붙이고⁵¹⁾ 程伊川, 范蘭溪, 朱晦庵의 箴과 銘을 抄錄하여 贊을 붙인 冊이다.

西山은 朱子의 私淑諸子중 이름 높은 학자이다. 이 「心經」은 心學에 요긴한 것을 뽑은 것이며 그가 받아들인 朱子學乃至 程朱學의 사상을 體系化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²⁾

西山은 端平 2年(1235), 58歲로 他界하였는데 「心經」의 刊行은 그의 生存時의 일이다. 이 西山의 「心經」에 程敏政이 附註를 붙인 것이 「心經附註」이다. 程敏政은 明나라 사람이며 「心經附註」를 編纂한 時期는 15世期末이다.⁵³⁾

「心經附註」卷末에 程敏政은 다음과 같이 再書하고 있다.

西山先生心政二經梓行已久然嘗諦觀之心經有先生所自贊其出于手訂無可疑者若政經則雖道以經訓而附以漢晉隋唐守令之事凡先生所歷州郡榜示諭告之文亦雜附之乃自名之爲經竊恐未然豈先生嘗手錄經史牧民之要備省覽而後人附會以成之欲與心經相比故邪或者以心爲體政爲用庶幾成一家之說此尤不然程子曰心一也有指體而言者有指用而言者朱子大學章句亦以心之全體大用爲言茲乃獨指心以爲體豈非殘之甚耶況聖人之政必由身而家而國而天下凡制禮作樂修內攘外用理財皆政之大者不一及之而規規于民社之間舉措禁戒之蹟誠有不可知者故今獨取心經爲附註而政經未暇及焉爲附註而政經未暇及焉以爲誠有得于心學則舉而措之無施不宜其體備其用周有不俟乎他求者矣. 弘治五年壬子八月朔旦程敏政再書

이에 따르면, 西山의 心經과 政經 二經은 刊行된지 이미 오래이지만 心經은 西山이 自贊한 바가 있으니 그 手訂하여 刊行한 것이 의심할 바 없다. 政經은 비록 머리는 經訓으로 하고 漢晉隋唐의 守令의 일을 붙이고 대체 西山이 歷任한 바의 州郡의 榜示와 諭告文을 또한 붙이고 스스로 이름을 經이라 하였다. 가만히 생각하니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다.

西山이 일찍이 經史와 牧民의 요점을 手錄하여 省覽에 대비해 두었는데 뒷사람이 附

50) 尹炳泰, 退溪와 心經附註, 韓國의 哲學 第8號, 慶北大學校 漢溪研究所, 1979.

51) 上同. 「心經」三溪書院摹刻.

52) 李相殷, 退溪의 生涯와 學問, p. 121. 瑞文文庫, 1973.

53) 程敏政이 編纂한 「心經附註」序末尾에는 「弘治五年, 壬子七月望, 後學 新安程敏政 謹序」라고 쓰고 있다. 上揭 「心經」心經附註序 三溪書院摹刻.

會하여 心經과 서로 비교하고자 하여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或者는 心을 體로 하고 政을 用으로 하니 한 사람이 이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근사하다고 말하니 이는 더욱 그렇지 않다. 程子是 心은 하나라고 하였으니 體를 가르켜서 말할 수도 있고 用을 가르켜서 말할 수도 있다. 朱子是 大學章句에서 또한 마음(心)의 全體大用으로 말하였으니 이에 홀로 心을 가르켜 體라고 하니 어찌 그 어긋남이 甚하지 않는가. 하물며 聖人의 政治가 반드시 몸을 거쳐 집을 거치고 나라를 거쳐 天下에 미치는 것이니 대체 制禮 作樂 修內 攘外 用人 理財가 모두 政治의 큰 것인데 이에는 하나도 미치지 아니하고 守令在任中 行動舉止와 禁戒의 자취를 구구하게 했으니 진실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 고로 홀로 心經을 취하여 附註하고 政經은 며칠 여가를 두지 아니 하였으니 내가 생각하기를 진실로 心學에 터득함이 있고자 하거든 들어서 활용함에 베들면 마땅치 않는 것이 없어서 그 체가 갖추어지고 그 用에 두루하여 他에 구함을 기다리지 않음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政經과 관련하여 「心經府註」編纂의 理由의 一端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나라에 「心經府註」가 언제 들어왔는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太宗 3年(1403) 10月 27日에 明使가 「眞西山讀書記」를 가져 왔다⁵⁴⁾고 하며 明에서 弘治五年(1492)年末, 그의 「心經」을 附註한 「心經附註」가 刊行되었고 「心經附註」가 우리 나라에 傳來한 것은 中宗 35年(1540) 以前이라고 하고 있다.⁵⁵⁾

「心經附註」에 退溪가 後論을 지은 해는 明宗 21年(1566) 9月 이다. 退溪後論 以前에 刊行된 版本이 남아 있다⁵⁶⁾고 한다.

贊의 머리에서 西山은 :

舜禹授受十有六言萬世心學此其淵源……

이라고 하였다. 「舜禹授受十有六言」 곧 舜임금과 禹임금이 주고 받은 十有六言이란 古文尚書 大禹謨篇에 있는 「人心 惟危 道心 惟微 惟精 惟一 允執厥中」의 十六字를 말하는 것이다.

論語 堯曰 第一章에 「堯曰 咨爾舜, 天之曆數在爾躬, 允執其中, 四海困窮, 天祿永終, 舜亦以命禹」라고 하였고 尚書大禹謨에는 「天之曆數在汝躬, 汝終陟元后,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이라 하였다.

이 人心道心說의 精一執中の 心法 心學과 太極陰陽의 宇宙觀은 儒敎思想의 基本을 이루는 것이며 堯舜은 私心을 가지지 아니 하여 聖人에게 王位를 禪讓한 理想的인 君主이며 完全한 人格으로 追慕하는 標本으로 삼는 것이다.

54) 尹炳泰, 前揭論文, p. 71.

55) 上同.

56) 上同.

人心道心說과 精一執中說을 堯舜禹가 授受하여 이어온 「孔門傳受心法」⁵⁷⁾이라한다. 朱子 中庸章句序文에서 대저 堯舜禹는 天下의 大聖人이다. 天下를 서로 傳하는 일은 天下의 큰일이다. 天下의 大聖人이 天下의 큰일을 함에 있어서 그 주고 받음을 즈음하여 알들하고 살들하게 가르쳐 경계한 바가 堯舜의 경우 允執厥中의 一句이며 舜禹의 경우는 이를 부연하여 人心惟危道心惟微精惟一允執厥中의 四句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말 가운데 깊은 뜻이 含有되어 이에 더할 天下의 理가 어찌 있으리오」라고 하였다.

夫堯舜禹天下之聖也以天下相傳天下之大事也以天下之大聖行天下之大事而授受之際丁寧告戒不過如此則天下之理豈有以加於此哉

要컨대 眞西山은 「舜禹授受十有六言」을 「萬世心學此其源」이라고 그의 贊에서 말했던 것이다.

「心經」에 채집된 經典의 글이나 그 글의 註釋으로 인용된 程朱說을 보아 居敬 즉 存養省察面을 강조한 것이다. 窮理, 즉 進學, 致知面은 거의 言及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⁵⁸⁾

周知하는 바와 같이 程朱學에서는 居敬과 窮理가 一體가 되어있다. 그러므로 誠意正心과 格物致知가 分離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周濂溪의 太極圖說은 朱子가 가장 重視하는 글이지만 이를 採錄하지 않고 養心說과 通書의 聖可學章만 引用하였고 大學章句의 格致章輔傳이 朱子의 窮理說을 端的으로 나타낸 글일 것이나, 그에 대한 言及은 없고 修養과 敬功夫에 直接關聯하는 敬齋箴, 求放心齋銘, 尊德性齋의 글만을 引用하고⁵⁹⁾ 있다. 이와 같이 「心經」은 西山이 朱子의 存養省察의 實踐面의 것을 內容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⁶⁰⁾

上述한 바와 같이 眞西山의 「心經」의 贊에서 「十有六言」을 萬世心學의 淵源이라고 하였거니와 그는 贊에서 다음의 글을 쓰고 있다.

人心은 어떠냐 하면 形氣에 생기어서 좋아함이 있고 즐거워함이 있고 분함이 있는지라, 「欲心」은 호리기 쉬움으로 이를 위태하다고 이르며 잠깐이라도 或 놓아 두면 衆慝이 이에 따른다는 것이다. 道心은 어떠냐 하면 性命에 근본하니 義라고 하고 仁이라고 하며 中正이라고 한다. 오직 理만 있고 形態가 없으니 이를 微라고 이른다. 조금이라도 或 잃으면 道心을 가지기가 드물어진다. 二者의 사이에 일찌기 틈을 용납하지 않는지라 회고 검은 것을 분별하듯 반드시 精密하게 살피면 아는 것을 仁을 지키는데 미치게 하여 서로 始終을 삼게 하는지라 道心과 人心의 區別을 精密하게 洞察하여 兩者를 混同하지 아니함으로 一이 되고 道心이 主가 되고 人心이 道心의 命令에 따르는 本來의 마음

57) 中庸章句 第一章 前註.

58) 李相殷, 退溪의 生涯와 學問, pp. 121~122, 1973.

59) 上同.

60) 上同.

이므로 中이다.

聖賢이 대를 이어 일어나서 舜임금을 본받고 禹임금을 法받아 要絀를 끌어서 來世에 昭示했으니 戒愼恐懼, 慎其獨, 閑邪存誠이며 微忿窒慾이다.

上帝가 이에 臨하시니 그 敢히 혹 두 마음을 가질 것이라, 屋漏, 곧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인들 어찌 부끄러움이 있게 할 것인가. 非禮勿言,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動을 모두 능히 해서 敵을 이에 치는 것 같이 할 것이요 四端이 이미 發하여 모두 擴充된다……舜이 어떤 사람이오 나도 더불어 기약할 수 있다. 오직 이 道心이 萬善의 주장이다. 하늘이 나에게 주었기에 그 큰 것이다. 이를 걸으면 太極이 몸에 있고 홀으면 만가지 일이 되니 그 솜이 무궁하다.

替曰,

舜禹授受十有六言萬世心學此其淵源人心伊何生於形氣有好好有樂有念有懼惟欲易流是之謂危須臾或放衆惡從之道心伊何根於性命曰義曰仁曰中曰正惟理無形是之謂微毫芒或失其存幾希二者之間魯弗客隙察之必精如辨白黑知及仁守相爲始終惟精故一惟一故中聖賢迭異體姚姒似提綱翠維昭示來世戒懼謹獨閑邪存誠曰忿曰欲必窒必慾上帝塞臨其敢或貳屋漏雖隱寧使有愧四非皆克如敵斯攻四端既發皆擴而充……舜何人哉期與之同維此道心萬善之主天之予我此其大者歛之方寸太極在躬散之萬事其用弗窮…

贊에 이어 顏若愚가 쓴 글에서 眞西山의 「心經」을 西山이 聖賢의 格言을 빼어 엮어 스스로 贊을 붙인 것이라고 하고 眞西山의 心學은 朱子로 말미암아 周濂溪, 程子, 孔子에 까지 연원이 소급하며 存養하는 功이 지극하다는 것이다. 若愚는 端平改元(1234年) 10月 既望에 郡學에서 西山의 「心經」을 刊行한 것이다.

右心經西山先生撫聖賢格言自爲之贊者也先生之心學繇考亭而邇濂洛洙泗之源存養之功至矣……復錄板于郡學與同志免云端平改元十月既望後學顏若愚敬書

「心經」의 性格은 心經總目과 위에서 考察한 바에 따라서 어느 程度 짐작할 수 있지만 「心經」에 註를 붙인 程敏政의 心經附註序를 살펴서 알아 보고자 한다.

程敏政의 心經附註序에 따르면 西山先生眞文忠公이 일찌기 聖賢의 格言을 추려서 心經을 編述하여 그 머리에 人心有危有微惟精惟一允執厥中的 十有六言을 쓰고 朱子의 尊德性齋銘으로 마치니 내가 매양 공경히 외우니 대개 儼然하기가 마치 上帝가 下臨하고 聖師의 지켜 보심과 같다. 그러나 아직도 그 註 가운데 의심나는 것은 或 西山讀書記에서 일컬어지기도 한 대개 程朱와 같은 大儒가 開示한 警切한 말이 이 책 心經에 많이 있지 아니 하니 이 經은 본래 先生이 편술하였으나 註는 뒷사람이 雜入한 까닭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거처하는 여가에 삼가 校正하고 또 附註를 그 밑에 달고 책머리에 序를 기록하였다.

嗚呼라, 사람이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三才에 參與하여 만가지 教化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은 다만 그 本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라보건데 得失

을 한 생각 잠깐동안 操縱하는데 聖과 狂, 舜과 跖이 여기서부터 갈리게 되는 것이니 그 두려움이 이와 같다. 옛 사람이 本源을 涵養하려고 제책하는 이가 琴瑟을 두고 左右에 箴箴을 써 붙여서 體를 세우고 用을 넓혀서 顯과 微를 두가지가 되지않게 하여서 聖을 바라고 天을 바라는 지극한 功을 이루도록 힘쓰게 하는 것이 까닭이 있다.

性學이 밝아지지 못하고 人心이 타락하여 性命을 耳目에 붙이고 理를 口舌에만 울려 놓으니 이것을 先生은 깊이 우려하여 心經을 編述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學者가 마땅히 힘쓸 바를 한 뒤에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럽힘이 있으리요.

대개 일찌기 반복해서 紬繹하여 程子の 말을 얻었으니 程子는 天德王道의 그 요점은 다만 謹獨이라 하였다. 程子는 또 學者는 모름지기 敬以直內를 가지고 涵養하는 것이나 直內 이것이 根本이라 하였다.

朱子 또한 程先生이 後學에 功이 있는 것이 가장 敬一字에 있다고 하고 敬이라는 것은 聖學의 始와 終의 요체라 하였다. 대개 이 經의 가르치는 바가 敬이라는 한 마디밖에 나가지 않는 故로 그 말이 간략해도 뜻은 정밀하고 그 功이 간략하고 효험이 넓으니 진실로 우뚝 솟은 이른바 障川之柱요 표준이며 어두움을 밝혀주는 거울이라. 斯道에 크게 功이 있고 잠시라도 소홀히 할 것이 못된다.

이 晩生末學이 무엇을 아리오마는 문득 손수 記錄한 것이 책이 되니 동지들에 씀하고 敬說을 말함에는 특히 상제함을 더하니 이런 까닭으로 어찌 감히 先生의 글을 달리 많이 求하리오, 心經이던 된다.

마음을 聖經賢傳속에 두어 檢防熟復의 바탕으로 삼고저 도모함이라고 하고 있다.

心經附註序

西山先生眞文忠公嘗撫取聖賢格言爲心經一編首危微精一十有六言而以子朱子尊德性之銘終焉走每敬誦之蓋僣乎若上帝之下臨聖師之在目也然猶疑其註中或稱西山讀書記而凡程朱大儒開示警切之書多不在卷意此經本出先生而註則後人雜入之故邪齋居之暇謹爲之參校且附註其下而識其首曰嗚呼人之得名爲人可以參三才而出萬化者以能不失其本心而已顧其操縱得矢于一念俄頃之間聖狂舜跖於是焉分其可畏如此古之人所以爲涵養本原之計者至不敢撤琴瑟而廢箴箴于左右使體立用宏顯微不二用底于希聖希天之極功有以也性學不明人心陷溺率命于耳目騰理于口舌此先生之所深悲而心經所由述也然則學者宜何所用力而後無忝于人之名哉蓋嘗反覆紬繹得程子之說曰天德王道其要只在謹獨又曰學者須是將敬以直內涵養直內是本朱子亦曰程先生有功於後學最是敬之一字敬者聖學始終之要也蓋是經所訓不出敬之一言故其語約而義精其功簡而効博誠所謂障川之柱指南之車燭幽之鑑大有功于斯道而造次顛沛不可忽焉者也晩生末學何所知識輒手錄成帙以告同志者而於言敬之說特加詳焉豈敢以是求多于先生之書哉圖實心于聖經賢傳之中爲檢防熟復之地云爾弘治五年壬子七月望後學新安程敏政謹序⁶¹⁾

程敏政의 위와 같은 心經附註序에 따르면 당시 道問學에만 치우쳐 尊德性을 소홀히 하는 傾向을 개탄하여 編述한 것이므로 「心經」의 內容은 敬의 實踐을 말하는 글로만 엮여졌다는 것이 될 것이다.⁶²⁾

61) 前掲, 三溪書院摹刻에 의함.

62) 李相殷, 前掲書, p. 123.

그리고 「心經」을 附註하는데 西山의 見解에 동조하여 程朱와 그밖의 心學者들의 敬에 대한 學說만을 특히 상세하게 原註의 不足을 補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³⁾

일찌기 李相殷教授의 研究에 의해서 밝힌 바⁶⁴⁾이지만 程敏政은 「心經」을 附註함에 있어서 西山의 見解에 따르고 있지만 陸山系統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朱子의 尊德性齋集을 附註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朱子의 말을 引用하였다.

朱子曰伊川只說一箇主一之謂敬無適地謂一只是如此則更無事某向來自說得尊德性邊輕了今覺得未是上面一截便是一箇坯子有這坯子學問之功方有措處⁶⁵⁾

여기서 皇敬은 朱子가 「나는 지금까지 尊德性 한편을 輕了히 한 바 없지 않은데 지금 옮지 않은 것을 깨닫는다……」을 引用하여 이 밑에 按語를 다음과 같이 붙여 놓았다.

朱子晚年以學者專講說而廢涵養將流於言語文學文陋而不自覺故又於尊德性爲重既爲程允夫作銘且屢有懲于從遊者蓋定論也故心經以是終焉後之學者誠力於斯而知所歸宿則德可修道可凝而作聖之功可幾矣⁶⁶⁾

여기서 黃敬은 「朱子가 晩年에 學者들이 講說만 오로지 하고 涵養을 廢하여 言語의 陋에 흐른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하여 尊德性에 치중하였다. 그래서 程允夫를 위해서 이미 尊德性齋銘을 지어주고 從遊하는 이에게로 자주 경계한 바 있으니 이것이 대개 定論이라⁶⁷⁾고 쓰고 있다.

2. 退溪의 “心經後論”

退溪가 그의 學問思想에 있어서 感發興起의 힘이 된 하나는 心經이다.

良齋李德弘의 記錄에 따르면 退溪는 「心經을 얻은 뒤로부터 비로소 心學의 淵源과 心法의 精微함을 알고 평생 이 책을 神明같이 믿고 嚴父같이 尊敬한다」고 스스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自言吾得心經而後始知心學之淵源心法之精微故吾平生信此書如神明敬此書如嚴父⁶⁸⁾

退溪는 心經後論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浚少時游學漢中如見此書於逆旅而求得之雖中以病廢而有晚悟難成之歎然而其初感發興起於此事者

63) 上同.

64) 上同.

65) 前揭, 三溪書院摹刻, 心經 卷之四, 二十六面.

66) 上同.

67) 李相殷教授는 前揭書 p. 124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篁墩의 이 按語는 王陽明의 「朱子晚年定論」說의 先聲이라고 볼 수 있다. 陽明은 朱子의 集註, 或問類를 中年未定說이라고 보고 晩年에 이르러서는 지난 날의 잘못을 뒤우치고 尊德性을 증시하게 되어 自己와 意見을 같이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朱子學派인 羅整菴은 陽明에게 長文의 反駁書를 제출하여 이를 부인하였다고 한다. 程篁墩은 朱子學派이면서도 以上 朱子의 말을 定論이라고 하였으니 陸氏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68) 增補退溪全書, 四, 言行錄 卷之一, 169面, 下段.

此書之力也……⁶⁹⁾

退溪는 그 學問思想에 感發興起의 힘이 된 하나는 「心經」이므로 平生 이 글을 尊信하여 四子와 近思錄 아래에 두지 아니 하였으나 매양 이 글을 읽다가 그 책 끝에 가서 한번도 의심을 두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아마 그것은 「心經」의 編述과 篋墩을 비롯한 諸說의 附註 가운데 적합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公論을 辨別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故平生尊信此書亦不在四子近思錄之下矣及其每讀至編末也又未嘗不致疑於其間……⁷⁰⁾

그 疑問이란 吳氏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무엇을 보고 한 것이며 篋墩이 이 대목을 뽑아 놓은 것은 무슨 뜻이며 그리고 그 중에 天下 사람들을 거느리고 陸氏에게 돌아가려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以爲吳氏之爲此說何見篋墩之取此條何意其無乃有欲率天下歸陸氏之意歟……⁷¹⁾

그러나 스스로 해석하기를 朱子의 학문은 大中하고 지극히 정당하여 한 쪽으로 치우치는데 떨어지는 폐단이 없는데도 오히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浮泛의 잘못이 있다 하며 그 門人들에게 홀어진 마음을 가다듬고 착실한 工夫를 하라고 힘껏 경계하였으니 지금부터 소급해 올라가서 그 從遊하던 선비와 私淑하던 무리들이 혹 능히 그 뜻을 깊이 본받지 못하고 말단으로 입과 귀로만 익힌 사람이 적지 않으나 吳氏와 篋墩으로 말하면 그 뒤에 나서 斯道를 담당하고 만 길로 흘러가는 것을 올바르게 붙들어 주려는 뜻이 간절하여 할 수 없이 이런 말을 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朱子의 뜻인즉 무엇이 나쁠 것이 있느냐고 하고 있다.

既而又自解以爲朱子之學大中至正無遺於一偏之弊矣猶自謂有浮泛之失力戒門人以收斂著實功夫自今而邇求之光從游之士私淑之徒或未能深體此意流而口耳之習者不少二公生於其後而任斯道揅流弊之意切不得已而爲此言是亦朱子之意耳亦可何傷之有哉⁷²⁾

그리고 篋墩에 관한 疑惑과 관련된 의문과 朱子의 晩年定論에 대해서 退溪는 그 意見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내가 篋墩의 사람됨과 그 學問을 한것이 필경 어찌된 것을 몰랐더니 얼마전에 橫城趙士敬의 皇明通記를 읽다가 그 속에 篋墩의 사실 서너 줄거리를 본 뒤에 대강 篋墩의 사람됨과 그 학문을 한 것이 결국 이러한 것인 줄을 알고 여기서 기막히게 탄식하고 마음 아파한지가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석연하지 않았다. 대개 그 세 내용안에 첫째는 賣題한 일인데 이 일의 대강은 일찍기 孤樹哀談에서 보았더니 「公(篋墩)이 劉健과

69) 退溪 心經後論.

70) 退溪, 心經後論, 國譯은 국역퇴계집 I, 心經後論, 고전국역총서, 參照.

71) 退溪, 心經後論.

72) 退溪, 心經後論.

함께 명망이 같았는데 일찌기 우연히 詩에 劉健의 단처를 말한 적이 있어서 劉健이 앙심을 품고 있더니 이 옥사 성립된 것은 劉健의 소위이다」라고 하였다.

所可疑者草廬之爲陸學當時已有其議後世公論亦多云云未知篁墩之爲人與爲學畢竟如何耳頃者橫城趙士敬因讀皇明通紀錄示其中篁墩公事實數三條然後畧知篁墩之爲人與爲學乃如此於是慨然而歎焉而傷者累月而猶不釋也蓋其三條內其一實題事也而此事梗槩曾於孤樹哀談見之矣公與劉健齊名而嘗偶言健短於詩健卿之此歎之成健爲之也⁷³⁾

滉의 생각으로는 賣題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염치를 차릴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안할 것인데 公과 같이 어진 사람으로 옛날 사람의 心性學을 研究하는 天下의 지중한 이름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이치가 있느냐, 하물며 그때에 劉健이 한창 큰 벼슬자리에 앉아 세도를 하였으니 터무니 없는 말로 얹어 넣어 탄핵한 사람이 劉健의 눈치를 알아채고 그런에서 나온 것이 아닌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 둘째는 汪循이 변론하기를 「公이 勢와 利의 두글자를 능히 푼 털어 버리지 못하였다」 하였으니 그 지적인 것이 무슨 일을 가지고 그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과연 실제로 지탄받을만한 일이 있었으면 이것은 자연 上蔡鸚鵡의 기용을 면할 수 없겠지마는 그 心性學을 전한데 있어서는 참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 어려우니 나는 의심하는데 한갓 汪循은 일찌기 賣題한 누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勢利를 가지고 지목한 것이라면 그 일 자체의 사실이 아니고 사실인 것을 이미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니 또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결정적인 논평이라 할 수 있느냐

滉以爲賂賣之事稍知自好有廉隅者不爲而謂以公之賢求古人心學負天下重名而爲之乎況彼健方入閣用事安知其誣擄發劾者不由於承健風旨而然乎其二汪循之論謂公於勢利二字未能擺脫得去此未知所指爲何事若果有實事之可指則是自不免上蔡鸚鵡之譏其於心學之傳固難議爲不然吾恐循也徒見斯人曾被賣題之累因以勢利目之也則其事之虛實既未的知又安可以爲斯人之定論乎⁷⁴⁾

그 셋째는 陳健이 公의 道一編을 변론할 적에 그 說에 말하기를 「篁墩이 陸氏의 학문을 彌縫하려고 朱·陸 두분의 말을 가져다가 早晚間 그 말을 변경해가며 혼란을 일으키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들을 깨끗이 뒤집어 엮었다 하며 朱子도 젊을 때는 잘못 象山을 의심하다가 晩年에 가서 비로소 뉘우치고 깨달아 象山과 함께 합했다 하니 그 後學을 그르침이 너무 심하다」하고 곧 그 일을 위해서 「學通辨」과 「編年考訂」을 저술하여 朱·陸 두 학설과 같고 다름과 옳게 그른 귀추를 끝까지 밝혀 놓았다 하였으니 기막힌 노릇이다. 이 말을 믿는다면 篁墩이 과연 잘못하였고 그 학문이 과연 의심 나는 데가 있다.

내가 일찌기 생각한 것이 있는데 朱氏陸氏가 서로 같지 않은 것은 고의로 같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쪽은 儒요 저쪽은 禪이며 이 쪽은 정당하고 저 쪽은 邪하며 이쪽은 公平하고 저쪽은 私狃하였으니 이렇고서야 어떻게 서로 합할 수 있겠는가

73) 退溪, 心經後論.

74) 上同.

其三則陳健論公道一編說也其說云篁墩欲彌縫陸學乃取朱陸二家言論早晚一切顛倒變亂之矯誣朱子以爲早年誤疑象山晚年始悔悟而與象山合其誤後學甚矣因爲之著學部通辨編年考訂以究極同異是非之歸云噫信斯言也篁墩其果誤矣其爲學果有可疑者蓋嘗思之朱陸二氏之不同非故有意於不同也此儒而彼禪此正而彼邪此公平而彼私狼夫如是安得相同邪⁷⁵⁾

孔子가 말하기를 글에서 학식을 넓혀가지고 禮로써 요약하라(博學於文, 約之以禮)고 하였고 子思는 「尊德性而道問學」을 말하였고 孟子는 「博學而詳說之將以反說約也」라고 하였으니 두가지가 서로 의지해 가는 것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그 중에 하나가 없이는 굴러가고 날아가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과 같으니 이것은 실로 朱자의 말이다. 우리 儒家의 법이 본래 이와 같아서 老先生이 一平生을 두고 이 두가지 학설에 종사하여 조금이라도 한 쪽에 치우치는 일이 있으면 곧 깊이 반성하고 깨끗이 고치는 까닭에 그 편지를 왕복하는 사이에 어떤 때는 억누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찬양하기도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스스로 우리 儒家의 법을 써서 그 자체내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 大中하고 지극히 정당한 길로 나가게 하였음이니 어찌 初年에는 글자 뜻과 末端에만 정신이 팔렸다가 象山을 본 뒤에야 비로소 깨닫고 모두 거두어 가지고 본원으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道一編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학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의 이름만을 가지고 陳健의 말을 헤아려보면 거기에 「반드시 道는 하나요 둘이 없는 것인데. 陸氏는 頓悟하여 처음부터 하나가 있었고 朱子는 첫번에는 둘이던 것이 나중에는 하나가 되었다」 하였을 것이다.

孔子曰博學於文約之以禮子思曰尊德性而道問學孟子曰博學而詳說之將以反說約也二者六相須如車兩輪如鳥兩翼未有廢一而可行可飛者此實朱子之說也吾儒家法本自如此老先生一生從事於此二者纔覺有一邊偏重即猛省而痛改之故其見於書尺往復之間者互有柳楊此乃自用吾法而自相資相掄以趨於大中至正之道耳豈初年全迷於文義之末及見象山然後始悟而收歸本原乎哉余未見道一編未知其爲說如何然執書名而據陳語其必謂道一而無二陸氏頓悟而有一朱子早二而晚一⁷⁶⁾

진실로 이러하면 이것은 陸氏가 朱子에게 의뢰한 것이 없이 朱子가 도리어 陸氏에게 의뢰한 것이 되었으니 이것도 또한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옛날에 程允夫가 蘇軾을 물어다가 程子에게 불이려 하여 蘇程之室이란 말이 있으니 朱子가 나무라기를 「이것은 향내나는 풀(薰) 구린내 나는 풀(蕪)과 일음과 솥을 한 그릇에 섞어 넣은 것과 같으니 향내나고 깨끗하여 더럽지 않기를 바라는 어쨌든 어려운 노릇이다」 하였으니 어리석은 나의 생각에는 篁墩이 朱·陸 두분의 학설을 갈게 하려하는 것을 거의 程允夫의 식격과 같게 되는 것이다.

苟如是則是陸無資於朱而朱反有資於陸矣斯不亦繆之甚耶昔程允夫欲授蕪而附於程有蘇程之室之語朱子斥之曰是無異於雜薰猶永炭於一器之中欲無芳潔而不汚蓋亦難矣噫謂篁墩之欲同二家殆亦同歸於

75) 上同.

76) 心經後論.

允夫之見矣⁷⁷⁾

그전에 만일 朱子가 나중에 陸氏와 같게 된 사실이 있었으면 陸氏가 죽었을 때에 朱子가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어째서 「크게 머리를 내밀고 큰 소리를 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었느냐」고 탄식하였으며 또 「어째서 그 학설이 江湖에 퍼지게 되면 어진 사람의 뜻을 손상시키고 어리석은 사람의 허물을 더하게 될 것이다」고 근심하였겠느냐, 陸象山은 일찌기 그 門人에게 이르기를 「朱元晦는 태산교악 같으나 오직 그가 자기의 본 것만을 스스로 옳다 하고 남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한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그 두 분이 평일에 일찌기 道가 같다는 말을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었는데 뒤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끌어 맞추어 억지로 같게 만들려 하는 것이니 어찌 될 번이나 한 노릇이냐. 그 본 것이 이미 잘못되었으면 그 마음도 또한 구차스러워서 이 일을 가지고 글을 만들면 뒷날 天下後世의 사람까지도 그르치게 될 것이라, 자못 그전에 절어온 자취가 一定하여 바꾸기 어렵고 是非의 명확한 것은 어느때든지 속일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애써가며 겨우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에 가서는 그 마음의 빈 구석만 보이고 천하의 좋지 못한 말을 듣게 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賣題했다는 욕사는 아무리 「터무니 없는 말로 엮어 놓았다」 하여도 勢利에 대한 나무람은 혹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나는 것이니 이것이 滉이 여러 달을 두고 마음 아프게 탄식하는 점이다.⁷⁸⁾

向使朱子真有晚同之實則陸氏之死也與人書何以歎其平日大抬頭胡叫喚而遽至此哉又何以夏其說頗行於江湖間損賢者之志而益愚者之過哉又象山嘗告其門人曰朱元晦如泰山喬嶽惟恨其自是已見不肯聽人說語是則二氏之平日未嘗有一語相許以同道也而後人欲牽合附會強使之同歸豈可耶其見既誤則其心亦苟至以是著爲成書將以誤天下後世之人也殊不知已往之迹一定而難易是非之明無時而可欺其所勤苦而僅就者適足以見吾心罅隙而來天下之議論由是觀之賂賣之獄雖曰誣陷而勢利之諂恐或有以自召之也此滉所以歎傷累月猶未釋者也⁷⁹⁾

退溪는 篁墩이 初年未定論 晩年定論이 잘못이라는 것과 篁墩의 잘못으로 「心經」을 尊信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고 하고 구체적 篁墩의 그 初年 晩年の 구분을 구구히 하려는 것이 옳지 못하고 草廬公의 學說은 羅整庵의 말과 같이 優婆塞의 氣味가 있음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배우면 된다고 한다. 즉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때의 말과 같으면 心經을 죽히 尊信하지 못할 것인가」 하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내가 이 글을 보니 그 경은 詩傳·書傳·周易에서부터 程子·朱子の 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현의 큰 교훈이요 그語에 있어서는 濂洛 關閩을 바탕으로 하고 겸하여 그 뒤의 여러 賢人들의 말을 뽑아 모아서 至論아님이 없으니, 어찌 篁墩의 잘못된 것 때문에 성인의 큰 교훈과 현인의 至論까지 높여 믿지 아니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렇다 하겠지

77) 心經後論.

78) 국역퇴계집 I. pp. 416~419. 경인문화사, 1976.

79) 心經後論.

만 그 末章의 주에 가서는 朱子의 말을 가지고 初年・晩年の 다른 것을 나누어 놓고 草廬의 말로 끝을 막았으니 이것은 바로 道一編과 똑같은 규모의 論法인데 어째서 道一編은 잘못이라 나무라고 도리어 이 註는 옳다고 하는가.

或曰如子之言心經其不足尊信乎曰是則不然也吾觀是書其經則自詩書易以及于程朱說皆聖賢大訓也其註則由濂洛關閩廉取於後來諸賢之說無非至言也何可以篋墩之失而并大訓至論不爲之尊信乎曰其他固然矣至於末章之註也既以朱子說分初晩之異而以草廬之說終焉此正與道一編同一規模議論也子何譏斥於道一而反有取於此註邪⁸⁰⁾

한갓 글 많이 아는 것만을 힘쓰고 禮를 단속하는 것을 조글이라도 천천히 하면 그 폐단이 반드시 입으로 지껄이고 귀로 듣기만 하는 습관이 되는 까닭으로 朱子가 그 당시에 근심하고 경계하여 간절한 말씀이 진실로 이러하였고 그 주에 인용해 온 12條의 말은 그 門人이 行狀으로 지은 것이며 또 「晩年에 모든 선비들이 글 뜻에만 얽매인 것을 보고 자못 도학의 本體를 지시해 주었다」 한 것은 德性을 높이고 글 뜻에만 얽매이는 폐단을 막아 준 것으로 篋墩의 말이 아니요, 朱子의 뜻이 꼭 그러하였으니 篋墩이 여기에서 다만 그 初年・末年의 구분을 구구히 하려는 것이 옳지 않고 그가 朱子의 뜻을 따라서 西山의 經을 贊하여 이 책 끝에 註를 내어 놓아 뒤에 배우는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빠지는 것을 건져주려고 한 것 같은 참으로 至當하여 누구라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단지 朱子의 말만을 인용하고 여러 선배들이 朱子의 말을 발명해 놓은 줄거리로 보충하여 陸氏의 學說에서 「朱子가 晩年에 비로소 깨우치고 陸氏와 함께 합하였다」는 道一編에 말한 것과 같은 것이 일찌기 한 마디도 없음을라.

曰徒務博文而少緩於約約禮則其弊必至於口耳之習故朱子於當時其憂之戒之之切誠有如此註所引十二條之說其門人之述行狀又云晩見諸生繳繞於文義始頗指示本體云云則尊德性以揀文義之弊非篋墩之說也乃朱子之固然也篋墩於此但不當區區於晩初之分耳若其遵朱子之意贊西山之經註此於篇終欲以揀末學之誤實亦至當而不可易也況引朱說而補以諸儒發明朱說之條未嘗一言及於陸氏之學以爲朱子晩悟而與此合如道一編之所謂乎⁸¹⁾

그 때문에 混은 가만히 생각하기를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마땅히 넓히고 요약하는(博約) 이 두 가지가 다 끝나서 주자가 성공한 것이, 두 가지 功이 서로 보조하여 나가는 우리 儒家의 본법인 줄 알고서 이것을 가지고 이 經과 註를 읽어 篋墩의 道一編의 잘못된 것을 그 중간에다 집어 넣어 혼란시키지 않으면 성인도 될 수 있고 현인도 될 수 있는 공부가 꼭 여기 있는 것이니 그 높이고 믿는 것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許魯齋가 일찌기 말하기를 「내가 小學을 공경하기를 神明같이 하고 존중하기를 父母같이 한다」 하였으니 나는 心經도 또한 그렇다 하였는데 오직 草廬公의 학설만을 이리저리 연구해 본 즉 결국 「優婆塞의 氣味가 있다」는 羅整庵의 말이 꼭 들어 맞았다. 배

80) 心經後論.

81) 心經後論.

우는 사람은 마땅히 그런 뜻을 알아서 그 말의 같은 것은 골라서 가지고 그 말의 같지 않은 것은 내버리면 그것은 또한 옳은 일이 아닌가 한다.

故混竊以爲今之學者當知博約兩至朱子之成功二功相益吾儒之本法以此讀此經此註而不以篁墩一編之繆參亂於其間則所以爲聖爲之功端在於矣其尊之信之當如何哉許魯齋嘗曰吾於小學敬之如神明尊之如父母愚於心經亦云惟草廬公之說反復研究終有伊蒲塞氣味羅整庵之論得之學者當其意擇其言同者取之不同者去之其亦庶乎其可也皇明嘉靖四十五年歲丙寅孟秋日眞城 李混謹書⁸²⁾

3. 寒岡의 「心經發揮」

寒岡은 退溪가 「心經」을 愛書하여 篁墩 程敏政의 「心經府註」에 後論을 붙이고 「敬之如神明하고 尊之如父母」를 끌어 비유하니 西山以後에 退溪가 「心經」의 意味를 깊이 알게 되어 西山으로 말한다면 또한 後世의 揚子雲을 만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하다고 하였다.

……吾退溪李先生最愛此書至於係後論於篁墩之書而引魯齋神明父母之喻亞山之後唯先生爲深知此書之味而自西山而言之亦未爲不過後世之子雲矣……」⁸³⁾

寒岡은 젊을 때부터 이를 愛讀하고 일찍이 親히 退溪先生에게 質正하였다. 또한 從遊學者들에게 講⁸⁴⁾ 하기도 하였다. 寒岡이 이 「心經」을 얼마나 愛讀하고 研究하였는가는 다음 序文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惟幸天誘其衷酷嗜一念尚不能自己於摧頽之餘耿耿常思所以不然負此書者隱微幽獨之中蓋有欲已而不能者矣……」⁸⁵⁾

그런데 篁墩 程敏政이 註를 다는데 그 取舍하는 바가 혹 未瑩하는 바가 많은 것을 늘 怪히 여겨서 程朱가 發明 開示한 大訓이 자못 많이 빠져 있는데 이르러서는 이 「心經附註」의 유감이라는 것이다.

……至於程朱發明開示之大訓頗多未入編中不能不爲此書之遺憾……」⁸⁶⁾

따라서 寒岡은 대략 西山의 例를 모방하여 특별히 條目을 상세히 더했다고 諸先生의 말씀이 註解의 說에 있으니 分脚累書하는 것이 尙當하지만 이로 연유해서 老人의 눈에 不便할새 다만 一字를 비우고 이것을 標로 삼아 그 밑에 聯書하여 註로 하고 있다.

「……分門緝錄……略倣西之例特加條詳……諸先生之言而有註解之說合當分脚細書而緣不便老人之目只空一字以標其爲註而聯書其下」⁸⁷⁾

82) 心經後論.

83) 心經後論.

84) 年譜 卷一, 寒岡은 年譜에 의하면 明宗 二十年, 二十三歲 봄에 退溪先生에게 「心經」을 質疑次 갔고, 宣祖 二十二年 己丑에 學者들과 「心經」을 講하였다.

85) 心經發揮序.

86) 心經發揮序.

87) 心經發揮序.

그리고 周子太極圖說, 程子定性書, 伊川好學論, 橫渠四銘, 朱子仁誠說 등과 程朱行狀略을 附錄에 달았다.

且附錄周子太極圖說程子定性書伊川好學論橫渠西銘朱子仁誠等說與夫程朱行狀略⁸⁸⁾

이와 같이 하여 題目을 心經發揮라고 하였다.

以上에서 보았을 때 寒岡의 心經發揮는 先賢諸說을 繼述하고 각고 보태어 다듬은 것이며 序文앞에 敬之如父母尊之如神明明鏡止月光風을 썼다. 發揮라고 하는 用例는 易乾卦文言에 「六父發揮旁通情也」라 하고 있다.

이것을

疏言六爻發越揮散旁通萬物之情也周易姚氏學發揮發動六父發揮謂由六書而發動爲六爻也凡反覆推演⁸⁹⁾

이라고 하고 있다.

疏發謂發越也揮謂散也言六爻發越揮散旁通萬物之情也⁹⁰⁾

로 되어 있다.

大體로 發越揮散이나 發動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寒岡은 心經發揮라 題目한 것이 「어찌 감히 播示外人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檢閱翫讀의 資로 삼는데 便하고자 한다」는 學者의 謙遜을 말하고 있지만 깊은 뜻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道人目之曰心經發揮豈敢播示外人計哉只爲便此殘年檢閱翫讀之資耳⁹¹⁾

寒岡의 「心經發揮」는 大體 西山의 「心經」原文을 옮기고 附錄 周子太極圖說程, 伯子定性論, 程叔子好學論, 張子西銘, 朱子行狀略을 더 붙여 編述하였다.

뿐만 아니라 篋墩의 心經附註序와 그밖의 篋墩의 글은 모두 삭제했다. 따라서 篋墩이 붙인 全編의 附註와 按語도 모두 삭제하였다. 그리고 程朱의 學說로써 더 보충하고 있다. 이 보기를 尊德性齋에서 보던 篋墩의 附註와 按語는 모두 삭제되고 中庸 其他에서 程朱說로 보충되고 있다.

곧 中庸 二十七章에 보면

君子는 尊德性而道問學이니 致廣大而盡精微하며 極高明而道中庸하여 溫故而知新하며 敦厚以崇禮니라」

하고 있다. 그리고 二十七章의 朱子註

88) 心經發揮序.

89) 臺灣中華書局印行, 薛海.

90) 唐宋十三經 注疏, 周易正義 臺灣中華書局印行(十二面) 中華民國 六十六年.

91) 心經發揮序.

朱子曰尊者恭敬奉持之意德性者五所愛天之正理……尊德性所以存心而極乎道體之大也道問學所以致知盡乎道體之細也二者條德疑道之大端也不以一毫私意自蔽不以一毫私欲自累涵泳乎其所已知敦篤乎其所能此言存心之屬也析理則不使有毫釐之差處事則不使有過不及之謬理義則日知其所未知節文則日謹於所未謹此皆致知之屬也蓋非存心無以致知而存心者又不可以不致知

를 가지고 대체하고 있다.

앞에서도 考察하였거니와 眞西山의 「心經」에 採集된 經典의 글로 보든가 그 글의 註釋으로써 인용된 程朱의 글을 보더라도 「心經」은 程朱學에 있어서의 居敬 곧 存養과 省察面을 강조한 것이며 窮理面을 거의言及이 없다.

周濂溪의 太極圖說은 朱子가 가장 중시하는 글이지만 採錄하지 않고 養心說과 通書의 聖可學章단 인용하였고 窮理學說은 採錄되지 아니하고 敬齋箴, 求放心齋銘, 尊德性齋銘과 같은 修養에 관계되는 글만 採錄하였다. 이와 같이 眞西山의 「心經」을 存養省察의 實踐面에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⁹²⁾

그러므로 寒岡의 「心經發揮」의 附錄은 眞西山의 「心經」의 위와 같은 傾向을 바르 잡는 意義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晦庵朱先生行狀略은 朱子行狀의 「自章齋先生得中原文獻之傳河洛文學推明聖賢遺意曰」부터 「……嗚呼是殆天所以相斯文管生哲人以大斯道之傳也」까지이다.

程伯子行狀略과 더불어 朱子行狀略은 附錄에 더한 것을 周子太極圖說등 附錄에 採錄한 意圖를 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退溪는 儒學의 正統을 程朱學으로 보고 其他의 程朱의 思想과 相違되는 學說들을 모두가 非正統인 歧途 異端이라고 看做하여 이를 엄격히 배척하였다⁹³⁾고 할 수 있거니와 寒岡은 「心經發揮」의 編撰에서 보아 더욱 徹底한 한편 「心經」이 尊德性쪽의 學說에 치중한 것을 道問學과 尊德性의 綜合속에 尊德性에 관한 著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V. 結 言

以上에서 考察한바와 같이 寒岡은 爲己之學에 힘쓰는 한편 여기서 더 나아가듯 하며 內職은 사양하고 外職은 大體로 부임하였다. 疏劄는 具體的인 狀況에서 君主에게 王道와 君德을 諫하는 것이지만 여기 表明된바는 또한 寒岡의 基本的인 政治思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君主로 하여금 聖君, 그리고 德이 있는 君主가 되어서 國泰民安 輔國을 도모하는 것이 君主政治體制에 있어서 一次的으로 正當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寒岡도 또한 理想政

92) 前書 退溪의 生涯와 學問, pp. 121~122 參照.

93) 李相殷, 退溪의 生涯와 學問, p. 86.

治는 堯舜의 政治로 생각하고 있다. 舜임금은 大孝로서 大德者이다. 孔子는 孝가 德의 根本이며 모든 가르침이 여기서 된다고 하였다. 곧 「夫孝德之本也教之所由生也」라고 하였던 것이다.

大孝로서 大德이면 능히 民本主義政治를 具顯할 수 있는 것이다.

寒岡은 戊申擬上劄에서 「君主는 天地」이며 「父母」라는 것이다. 옛 聖人과 같은 「仁政」이 愛民政治가 되고 백성을 悅服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 仁政은 마음에 根源하며 政事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틀리는 것과 諫하여야 할 것은 舜과 湯도 뉘치 못하였는데 다만 도와달라고 請한 것과 諫하는 말을 좇아 拒絶하지 않는 것이 舜과 湯이 된 까닭이라는 것이다.

堯舜禹가 서로 授受한 十有六言은 孔門傳受心法이다.

聖인이 天下大事에 臨해서 주고 받은 말이 이 十有六言이니 政治에 있어서 이 以上 긴요한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心學의 韓國政治思想史上的 地位는 以上에서도 自明해진다고 할 것이다.

要컨대 寒岡은 綱常大倫을 聖賢의 垂範 垂訓에 이어 有德者爲君을 通한 爲民輔國의 民本主義 政治思想을 發揮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